

창고에서 잠자던 '좋은 책' 과의 '좋은 만남'

'98알뜰도서전 성황리에 마쳐... 참가사 적고 홍보부족 등 문제점도

한국출판협동조합과 KBS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금강기획이 주관한 '98알뜰도서전이 '좋은 책·좋은 만남'을 주제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재고도서의 판매와 독서문화 함양을 위해 열린 이번 도서전에는 문예출판사·문학과지성사·한길사·한울 등 단행본 출판사와 두산동아·예림당·어깨동무 등 아동출판사 200여사가 참가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출판협동조합 박기봉 이사장은 "현재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재고도서들이 독자와 다시 만나고 독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책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약 20만명 다녀가

첫날 개막식에는 한국출판협동조합 박기봉 이사장, 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 KBS문화사업단 이민희 대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회장, 출판연구소 김경희 이사장, 다산출판사 강희일 대표, 나남출판사 조상호 대표, 세계사 최선호 대표 등이 참석, 개막 테이프를 끊었다. 행사기간 중에는 현인·봄여름가을겨울·전창걸·최재원씨 등 연예인들의 사인회와 박한성 화백의 가훈씨주기 등 독자를 위한 작은 이벤트도 가졌다. 행사기간 동안 전시장을 찾은 독자는 약 10만~20만 명으로 추산

알뜰도서전은 창고에서 잠자던 책들이 독자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참가사 적고 홍보부족 등 문제점은 있었으나 이론으로만 논의되던 재고도서 활용방안을 출판계에서 직접 실천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출판계 인사들.
·여의도 중소기업종합전시장에 마련된 알뜰도서전에는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들도 열심히 책을 골랐다.

도서전에 참가한 출판사들은 주로 창고에서 잠자던 재고도서와 2년 전에 출간된 구간도서를 20~8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기간에 한해서만 출판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조정정가제를 도입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독자는 "서점에서는 살 수 없는 좋은 책을 싸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반겼다.

그러나 출판사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참가의사를 밝힌 출판사 수가 적어 행사장을 예술의 전당 만남의

광장에서 여의도 중소기업종합전시장으로 옮기는 혼선을 빚었다. 예산부족 때문에 초기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한 참가업체수의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기념품 부스에서는 책과 무관한 의류, 음료, 기타 잡화들이 판매돼 전시장 분위기를 산만하게 했다.

몇몇 출판사들은 구간도서뿐만 아니라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를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해 행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주로 가벼운 읽을거리의 책들이 선정, 판매돼 정작 좋은 책들은 많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사장을

찾은 독자들도 재고도서보다는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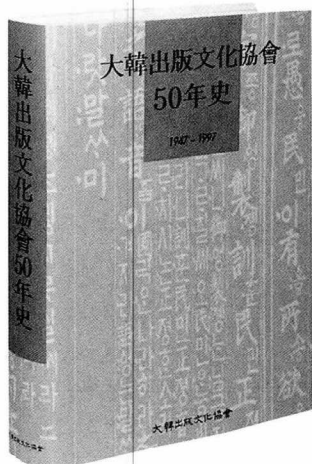
공개토론 거쳐 새로운 방안 세워야

한국출판협조합의 성의현 과장은 "이론으로만 논의되던 재고도서 활용방안을 출판계에서 직접 실천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출판계에서 공청회, 평가회 등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재고도서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 박천홍 기자

'출협' 50년의 빛나는 자취

《대한출판문화협회 50년사》 1947~1997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걸어온 반세기를 정리한 《대한출판문화협회 50년사》(이하 '50년사')가 나왔다. 이 책은 '25년사' (1972), '30년사' (1977), '40년사' (1987) 등 앞서 출간된 '출협사'의 기본틀을 토대로 1980년대 후반 이후 변화된 출판상황을 기술했다. 특히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종춘(출협 부회장, 성안당 대표)씨를 편찬위원장으로 송영석(해남 대표)·이경훈(전출협 사무국장)·이승우(전 출판저널 편집주

간)·전병석(문예출판사 대표)·정종진(출협 사무국장)·최덕교(창조사 대표)·허창성(평화출판사 대표)씨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87~97년까지 최근 10년의 자취는 한영환(전 연합통신 연감부장)씨가 정리했다.

이 책의 성격은 '출협사'지만,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도 가능하게 해준다. 서설〈현대출판이 있기까지는〉'출협 50년사'의 전사(前史). 세계 최초의 목판활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서 해방 직후 출판인들의 활동까지 출판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약술했다. 출협은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정해 해마다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이 날은 《고려대장경판》이 완성된 날을 기리는 깊은 의미도 담고 있다. 서설의 집필은 출판사적 의미를 담은 비증을 감안, 이승우 전 출판저

널 주간이 맡았다.

본문은 세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은 출협 50년의 발자취를 살폈다. 출협의 창립일은 1947년 3월 15일로 '출협 50년사'는 창립 51주년에 맞춰 나온 셈이다. 10년 단위로 서술된 1편은 출협의 힘찬 역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제2편은 출협의 활동과 사업내용을 담았다. 출판의 자유 확보와 회원의 권익옹호,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도서정가제 확립과 도서유통구조의 개선, 국제적인 교류와 이해증진,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등에 기여한 출협의 활약상이 잘 나타나 있다. 제3편은 역대 회장단 및 집행부의 구성, 회관의 운영 실태, 사무국의 조직 같은 출협의 살림살이를 다뤘다. 〈최성일〉

대한출판문화협회/B5/940면/80,000원